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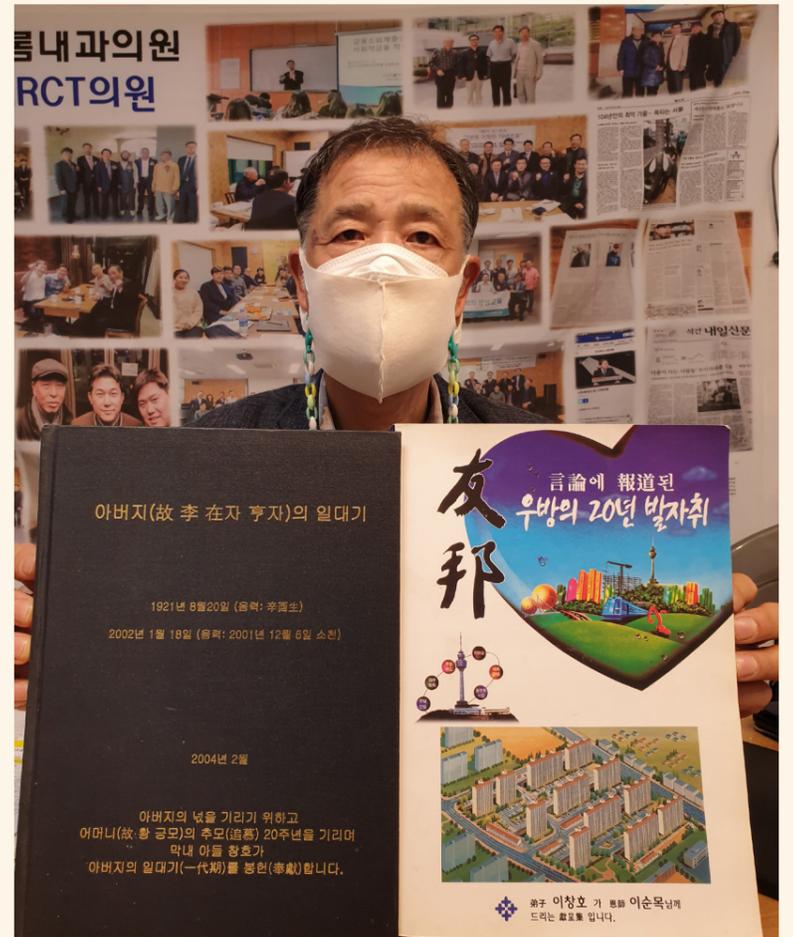
홈페이지에 돈이 필요하다는 자세한 사연과 간단한 서류 하나면 끝

변호사, 의사 등 수백명의 각계 인사들이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있어
고교시절 자신의 은사였던 전 우방건설 이순목회장의 20년사를 헌정하기도
대흥동 토박이로 법무부 교정위원, 서민금융연구원이사로도 활동중



이 상임대표가 직접 발로 뛰면서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 이러다 보니 '더불어사는사람들'의 이용은 전국적이다. 대출은 홈페이지를 방문해 돈이 필요한 자신의 사연을 자세히 올리면 이를 꼼꼼히 살피는 것으로 시작된다. 노인층 등 컴퓨터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그러다보니 간혹 정부기관인 금융감독원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소개 받을 정도다. 심지어 어떻게 알고 교도소의 수감자로부터도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창호상임대표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철저한 신용사회를

향한 강한 집념에서였다. 계기는 의외였다. 20대때 한국방송통신대 경영학과를 다니던 중 신용협동조합 이론에 빠져들면 서다. 이후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찾다보니 신용협동조합에 참여도 하고 2009년에는 창업자금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정부위탁기관에 취업해 '착한 대출'을 몸소 체험까지 한 그다. 결국 "부모없이 살 수 있어도 신협없이 살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취약 빈곤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2011년 8월30일에 3천만원의 자금으로 뜻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사는사람들의 창립을 선언하게 된다. 12년이 흐른 지금 수백여명의 각계 인사들이 이런 그를 물심양면으로 받쳐주고 있다고 한다. 홈페이지에는 지난 3월말 기준 무려 67만여명이 다녀갔을 정도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매일같이 나눔과 신용사회 정착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그의 모습이 아름답기만 하다. 이창호상임대표는 이외에도 고교시절 자신의 은사였던 전 우방그룹의 이순목회장에게 20년사를 모은 자료집을 발간해 헌정했는가 하면 자신의 부친



일대기를 모아 봉헌한 독특한 이력도 갖고 있다. 대흥동(11동 반장) 토박이기도 한 더불어사는사람들의 이창호상임대표는 서울중앙신용협동조합 감사, 마포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감사, 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을 거쳐 현재는 법무부교정위원, 서민금융연구원이사, 서울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신용회복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월간마포 구독신청은 이렇게 하십시오

- ※ 아래 은행에 1년 구독료 8만원을 입금하시고 월간마포 337-0116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 ※ 통화가 되시면 받아 보실 분의 성함, 주소, 전화번호와 입금하신분의 성함을 알려주십시오.
- ※ 입금이 확인되는대로 월간마포는 원하시는 호부터 1년간 우편발송 또는 직접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 170-07-065449

국민은행 543025-01-027843

예금주 한재순